

# 막 오른 6조7000억 추경 전쟁

### 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 선출 이번주 본격 심사 돌입 여 "원안 사수" 야 "재해 우선" 격돌...회기내 처리도 빠듯

여야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격돌한다. 여야는 이르면 8일 예결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추경안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추경안 심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추경안은 6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 제출 74일을 지나 가까스로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9일까지

로,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전체회의 및 추경안 조정소위 등의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회기 내 처리'에는 시간이 빠듯해 올해도 '졸속심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재해 추경 우선 심사' 원칙을 존중하겠지만, 재해 추경만 따로 때는 '분리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중

경기 대응 예산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에 해당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액 3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성 사업 예산들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11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부각하는 반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

로 보인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복안을 묻는 한편,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공격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 정책,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외교안보 현안, 사회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자사고 폐지 등을 '실정'으로 규정,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쟁보다는 합의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 야당으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강경화 서초갑·홍남기 강원 출마?

### 민주 이달 말 인재영입위 출범...장관·靑 인사 차출설 무성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주 경선 물결을 확정된 가운데 이달 말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한다. 여기에 7월 중순이나 8월초로 예상되는 개과과 맞물려 현역 의원의 여의도 복귀와 청와대·정부 인사들의 총선 출마 및 차출설 등 한창이다.

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과에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차기 전북지사직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장관과 청와대 인사 중에도 출마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 대상으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바

른미래당 3선인 이혜훈 의원과 맞붙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차출설도 흘러나온다.

경제 전문가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구 금융위원장이 각각 고향인 강원도 춘천과 강릉 선거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산 해운대 갑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맞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 차출론'은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부상하면서 한풀 켜진 상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부산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강기정 정부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부비서관도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로 거론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차분'한 정의당 전대

### 13일까지 당직선거 투표 심상정 선출 관측...홍행 저조

내년 총선을 이끌 정의당 당 지도부를 뽑는 5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투표 마감일인 13일 오후 6시 새롭게 선출된 당 대표를 비롯해 선거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차기 정의당 당권을 두고는 3선의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이 맞붙었다.

하지만 '어대심'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란 말이 나올 만큼 사실상 심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데다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선거 흥행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 의원은 '심상정과 함께 정의당 국민 앞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주요공약으로는 공직후보 선출방식에 개방형 경선제도 도입, 한국형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설치, 기본소득 도입 등을 내세웠다.

양 전 위원장의 슬로건은 '과감한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다. 그는 전면적 녹색 전환, 소득 격차 해소, 강력한 자산 재분배를 3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부대표 선거에는 임한솔·이혁재·박인숙·이현정·박예휘·김종민·한창민 (후보 등록 순) 후보가 출마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순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미래, 다시 먹구름

### 혁신위, 당 지도체제 개편 안전 상징 추진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내용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던 바른미래당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일부 혁신위원은 이번 주 중 '당 지도체제 개편'을 혁신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사실상 혁신위가 순학규 대표의 거취를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일부 혁신위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손 대표 퇴진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미"라며 "반대로 팽팽하지만 결국 의제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손 대표 거취가 워낙 큰

문제인 데다 다른 사안들과도 얽혀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유승민·안철수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와 손 대표 측 '당권파'는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패 이후 손 대표 사퇴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해 왔다.

이후 '혁신'과 '자강'을 키워드로 이 같은 극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1일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혁신위 내부에서 손 대표의 거취를 놓고 대립 구도가 재현되는 모습이다.

주대한 위원장을 제외한 혁신위원 8명

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원의 인물로 절반씩 추천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혁신위 논의가 사실상 '계파 대립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가 진통 끝에 현 지도부의 거취를 비롯해 당 지도체제와 관련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수용할지를 놓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파열음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있다.

애초 손 대표의 퇴진을 주장한 비당권파는 "혁신위가 지도부 사퇴까지 결정하는 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논의 끝에 최고위가 혁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청년부대변인' 신설

### 유튜브 '썸' 공개 오디션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유권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청년 부대변인'을 신설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 부대변인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기회한 초안을 이해한 대표에 보고한 뒤 다음 주 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한 대표는 최근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제안이 나오자 "좋은 구상이다. 빨리

만들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변인단과 전국청년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면서 '민주당의 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근 부대변인 1명과 비상근 부대변인 여러 명을 뽑을 계획이다.

선발 방식으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썸'을 통해 면접 과정이나 브리핑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수사권 조정, 국회 의견 존중"

### 오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5·18 왜곡 차단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5·18에 대해 "군사반란과 헌정파괴 행위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사건임에도 민주화 운동 정신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정 수사권 조정과 관련, 윤 후보자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조정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한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검사로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벗어난 여야 의원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kwangju.co.kr

## 풍암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 신창동, 근린상가 매매/임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중음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매매 - 8억 8천만원
- 임대 - 보1억원에 월400만원

문의. 010-6834-7400